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마중물, 촉매자본 Catalytic Capital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I. 들어가며	04
II. 촉매자본에 대한 이해	05
01. 촉매자본의 개념	
02. 촉매자본의 역할	
1) 싹틔우기(Seeding) 역할: 초기 시장 형성	
2) 규모화(Scaling) 역할: 투자 규모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3) 지속하기(Sustaining) 역할: 지속적 격차 해소	
III. 국내외 사례로 본 촉매자본의 작동 방식	11
01. 해외사례	
1)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Global Health Investment Fund, GHIF)	
2) 에너지 세이버스(Energy Savers)	
02. 국내사례	
1) 한국스마트협동조합-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프로그램	
2)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아크 임팩트벤처투자 펀드	
IV. 국내 촉매자본의 활성화 방안	17
01. 공익법인 사회투자제도	
02. 지역기금과 중개기관 기반의 도매-소매 구조 구축	
03. 임팩트 성과 기반 사회투자 시장 구축	
V. 결론	20

‘SVS 인사이트’는

국내외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 들어가며

오늘날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지역 소멸, 돌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이나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⁰¹이 대안으로 부상하였으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나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수익 구조와 높은 초기 위험으로 인해 민간자본의 유입이 제약되는 자본 공백(capital gaps)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은 주목할 만한 금융 전략이다. 촉매자본은 일반적인 시장 투자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높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자본 공백을 채우고, 더 큰 규모의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자선적 기부나 보조금처럼 소모되는 자원이 아니라, 금융 구조 내에서 위험을 재분배하고 시장 형성 자체를 촉진하는 금융 도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국내에서 촉매자본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고는 촉매자본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촉매자본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촉매자본이 어떻게 실제 시장의 위험을 완화하고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 촉매자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1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금융을 일컫는 용어로 “사회적 금융”을 사용한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연대금융”을 포함해 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 윤리은행, 사회적투자 등 좀 더 넓은 현상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한다.

II. 촉매자본에 대한 이해

01. 촉매자본의 개념

촉매자본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으나, 그 뿌리는 자선활동과 투자의 경계가 모호했던 초기 사회적 금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촉매자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자의 의도와 전략에서 비롯된 자본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초기 자선적 투자와 임팩트투자 시장의 형성

1969년 미국 국세청(IRS)은 재정적 수익 극대화보다는 자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로 정의했는데, 이는 재단이 투자 과정에서 재정적 이익을 얻더라도 자선 단체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였다. 일회성 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금을 다시 회수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본운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오늘날 촉매자본의 핵심적 특징인 인내자본과 유연한 투자 조건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투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10년 JP모건과 록펠러재단이 임팩트투자를 사회·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기 임팩트투자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성과 창출을 우선시하고, 낮은 수익률이나 장기 회수 구조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 촉매자본의 핵심 속성인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위험 감수(risk tolerance), 유연한 투자조건(flexible financing)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혼합금융(blended finance) 구조가 확대되면서, 임팩트 투자자들은 공공·민간 자본 간 위험 분담 구조 안에서 민간 투자의 참여를 이끄는 핵심적인 촉매자본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Pedersen, 2025).

이러한 흐름속에서, 2019년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그리고 오미디아 네트워크(Omidyar Network)는 ‘촉매자본 컨소시엄(Catalytic Capital Consortium, C3)’을 출범시켰다. 촉매자본 컨소시엄의 설립 목적은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주류 임팩트 투자와는 구별되는, 진정으로 시장의 격차를 메우고 투자를 유도하는 ‘촉매’로서의 자본을 정의하고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촉매자본 컨소시엄의 목표는 단순히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 촉매자본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촉매자본의 운용 사례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평가 도구

를 개발하고 있으며, 약 1억 2,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 세계의 촉매적 금융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있다.⁰²

촉매자본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공통된 정의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는 촉매자본의 핵심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촉매자본은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에 참여한다. 둘째, 이러한 위험 감수 또는 수익 양보는 단순한 재무적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성과 달성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셋째, 촉매자본은 후속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체 투자 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촉매자본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조금(grant),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debt), 지분투자(equity), 보증(guarantee) 등이 활용된다. 특히 후순위 자본이나 손실흡수 구조(first-loss structure)는 다른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효과를 제공하여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의 위험-수익 프로파일을 개선하여 추가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촉매자본 컨소시엄인 C3와 임팩트 투자 전문 컨설팅 회사인 타이드라인(Tideline)은 촉매자본을 일반적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재무적 기대치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낮은 수익을 수용하는 형태의 자본으로 정의한다(Tideline, 2019). 이들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3자 자본의 유입 가능성’으로 촉매자본의 투입 목적은 단순한 사업 지원이 아니라, 촉매자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다른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기존 투자 방식으로는 공급되지 않는 영역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민간자본의 추가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금융적 도구로 평가된다. 이들은 촉매자본을 단순히 저수익 투자가 아니라, 자본 시장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유럽의 사회투자 네트워크인 임팩트 유럽(Impact Europe, 구 EVPA)은 촉매자본을 주류 금융이 채우지 못한 공백을 의도적으로 겨냥하여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자본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임팩트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강조하며, 초기 단계 기업이 실적을 쌓아 후속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본다. 특히 높은 위험 감수, 인내, 유연성, 양보된 수익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통해 상업자본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매커니즘으로 제시된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촉매자본 컨소시엄, 타이드라인, 임팩트 유럽 등 주요 글로벌 기관들은 촉매자본을 공통적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낮은 수익을 수용하는 자본으로 정의하며, 그 핵심 목적을 사회적·환경적 임팩트 창출과 후속 민간자본 유입 촉진에 두고 있다. 기관마다 강조점은 다소 다르지만, 주류 자본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전략적 금융 도구라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보인다.

⁰² <https://www.macfound.org/programs/field-support/impact-investments/catalytic-capital-consortium>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촉매자본은 특히 초기 시장 형성 단계 또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나 임팩트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수익 구조,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의 이유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매자본은 투자 위험을 일부 흡수하거나 투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처럼 촉매자본은 단순한 저수익 투자나 보조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금융구조 내에서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전략적 도구다. 시장 실패로 생겨난 자본 공백을 메우고 민간 투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촉매자본의 정의 (촉매자본 컨소시엄, C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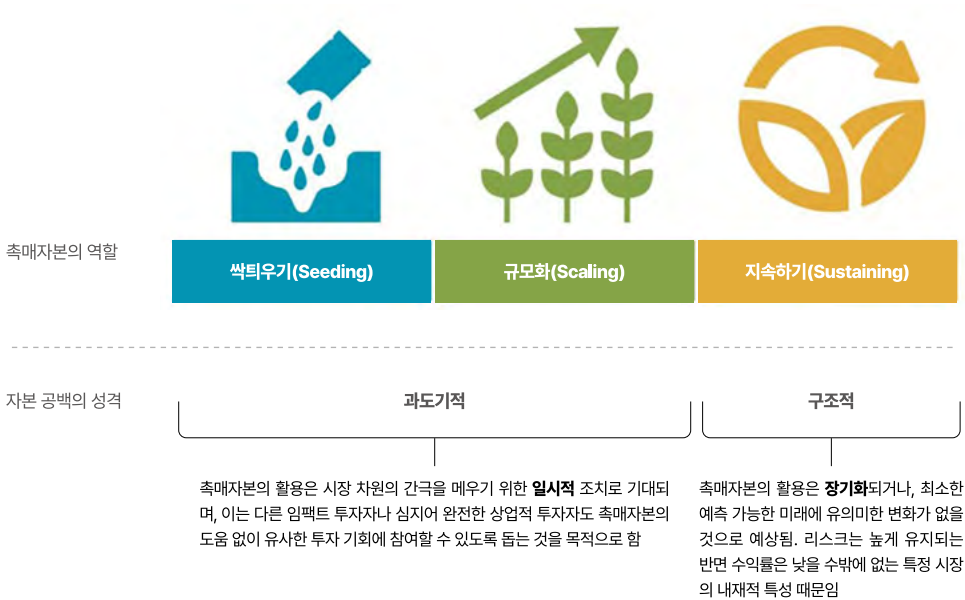
촉매자본이란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고, 촉매자본 없이는 불가능했을 제3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와 비교하여 불균형적인 위험을 감수하거나 낮은 수익률을 수용하는 대출, 지분, 보증 및 기타 형태의 투자를 의미한다.

02. 촉매자본의 역할⁰³

촉매자본은 단순히 투자 부족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 시장의 형성과 확장을 촉진하는 구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촉매자본 컨소시엄인 C3에서는 촉매자본의 역할을 싹틔우기(Seeding), 규모화(Scaling), 지속하기(Sustaining)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투자 대상의 성장 단계 및 시장 성숙도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자본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싹틔우기와 규모화 단계에서는 자본 공백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 사업자본이 해당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반면 지속하기 단계에서는 자본공백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로서, 장기적인 공익적 성격의 자본 참여가 요구된다.

그림 1 촉매자본 역할과 자본 공백



출처 : C3(2022), Advancing Practice in Catalytic Capital Guidance Note 3

⁰³ C3(2022), Advancing Practice in Catalytic Capital Guidance Note 시리즈

1) 싹틔우기(Seeding) 역할: 초기 시장 형성

싹틔우기(Seeding) 단계에서 촉매자본은 아직 시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 영역에 투입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부족, 성과 불확실성, 비교 가능한 사례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영역이다.

이 단계에서 촉매자본은 일반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우선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시장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신규 임팩트 투자 펀드, 혁신적 금융상품 구조, 또는 초기 단계 사회연대경제기업 투자 등은 아직 충분한 트랙레코드가 축적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촉매자본은 이러한 초기 불확실성을 감수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영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투자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싹틔우기 단계의 자본 공백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특징인데, 트랙레코드가 축적되고 시장이 성숙해지면, 촉매자본 없이도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는 구조로, 이 점에서 자본 공백이 구조적·영구적인 지속하기 역할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즉, 싹틔우기 단계 촉매자본의 궁극적 목표는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 투자 공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임팩트 투자 시장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2) 규모화(Scaling) 역할: 투자 규모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규모화(Scaling) 단계에서 촉매자본은 이미 초기 성과가 일부 검증된 투자 전략이나 조직이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기 단계에서 유효성이 확인된 비즈니스 모델 또는 투자 전략이라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거나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모화 단계에서도 촉매자본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며, 투자 대상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규모화 단계의 핵심 특징은 승수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며, 이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 **기업-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지원**: 초기 단계 기업이 성장하여 상업적 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투자 전략의 확산**: 혁신적이거나 틈새 전략으로 출발한 투자 방식을 검증된 주류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것
- **중개기관의 성장**: 신생 중개기관이 자산 규모와 트랙레코드를 쌓아 기관투자자가 신뢰하는 성숙한 중개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
- **민간 상업자본의 유입 촉진**: 혼합금융 구조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

이 과정에서 촉매자본은 후순위 투자, 보증, 혼합금융 구조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이

상적인 경로다. 트랙레코드와 성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촉매자본의 비중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촉매자본 없이도 시장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점에서 규모화 역할은 싹틔우기와 마찬가지로 자본 공백이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3) 지속하기(Sustaining) 역할: 지속적 격차 해소

지속하기(Sustaining) 단계에서 촉매자본은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투자 부족이 발생하는 영역을 지원한다. 이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저소득 지역, 또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영역은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투자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자본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 촉매자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촉매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또는 사업 모델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즉, 싹틔우기·규모화 단계와 달리, 지속하기 단계의 자본 공백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단기·중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속하기 단계에서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다음 세 가지 수준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 **개별 투자 단위 변화**: 개별 투자 대상 조직 및 해당 시장에서의 직접적 임팩트 창출
- **시장 차원의 변화**: 특정 시장 내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복제 가능한 모델 확산 및 추가 투자 유입 촉진
- **시스템 차원의 변화**: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종합적 관점의 개입으로, 투자 자본 외에 정책, 역량 강화, 옹호 활동 등 다양한 수단과의 결합 필요

이는 임팩트 투자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상업적 투자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은 구조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며,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 촉매자본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싹틔우기, 규모화, 지속하기라는 세 가지 역할은 촉매자본이 단순한 보조적 자금이 아니라 시장 형성과 확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금융수단임을 보여준다. 특히 초기 시장 형성(Seeding)에서 시작하여 투자 규모 확대(Scaling)를 거쳐 구조적 시장 실패 보완(Sustaining)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적 금융이 자생적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경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촉매자본은 단순히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넘어, 시장 참여자 간 위험 분담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III. 국내외 사례로 본 측매자본의 작동 방식

01. 해외사례

1)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Global Health Investment Fund, GHIF)⁰⁴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GHIF)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측매자본이 어떻게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JP 모건(JP Morgan Chase)의 협력으로 출범한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펀드이다.

이 펀드는 저소득 국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소외 질병(HIV/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콜레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약, 백신, 진단 도구의 개발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제약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실패 위험이 극도로 높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영역이다. 특히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은 시장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혼합금융 구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준 ‘부분 손실 보증(Partial Loss Guarantee)’ 구조에 있다. 이를 통해 약 6,500만 달러의 민간 자본이 보호받았으며, 이는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투자 수익은 IPO, 로열티 지급, 우선심사권(PRV) 매각 등을 통해 발생한다. 투자자는 이익의 80%를 배분받으며 나머지는 후속 펀드 조성에 활용된다.

표 1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의 자본 구조

자본 구조	참여 기관	역할
측매자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전체 펀드 손실의 첫 20%를 완전히 흡수함. 20%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위험을 공유함
공공/재단 투자	IFC(국제금융공사), KfW 개발은행, 그랜드 챌린지 캐나다 등	초기 자본을 공급하여 펀드 조성을 가속화하고 공공적 가치를 담보함
민간 투자	JP 모건 사회금융, GSK, Merck, Pfizer, AXA, Storebrand 등	보증 구조 덕분에 신용도가 보강된 상태로 투자에 참여. 시장 수준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함

⁰⁴ IFC(2017), Saving the Lives of the Most Vulnerable-With Financial Returns; GHIF: An Innovative Funding Structure Tackles Neglected Diseases Around the World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는 2016년까지 유바이오로지스(EuBiologics), 아세스 바이오(Access Bio) 등 12개 혁신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투자 조건으로 개발된 제품을 개발도상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법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 창출과 공익 실현이 상충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이 중 유바이오로지스는 저가형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HIV 및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통해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 전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유바이오로지스가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소외 질병 치료제 개발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초기 촉매자본이 투입되어 시장의 위험을 낮춘 결과, 민간 자본이 스스로 유입될 수 있는 투자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이다.

2) 에너지 세이버스(Energy Savers)⁰⁵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GHIF)와 더불어 촉매자본의 작동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20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출범한 에너지 세이버스(Energy Saver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지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인 지역사회 투자 공사(Community Investment Corporation, CIC)와 비영리 에너지 전문 기관인 엘리베이트 에너지(Elevate Energy)의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했다.

당시 시카고는 노후화된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존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건물의 75% 이상이 1942년 이전에 건설되어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이 낮았으며, 겨울과 여름 기온 변화가 커 냉난방 비용부담이 컸다. 또한 다가구 주택 상당수가 중앙계량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유주들에게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은 세금과 보험료를 제치고 건물의 가장 큰 운영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주택 소유주들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임대료 인상이나 건물 관리 소홀, 나아가 저렴한 가격의 주택 소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맥아더 재단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시카고의 저렴한 임대 주택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고, 저렴한 임대 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협력 체계인 보존 협약(The Preservation Compact)의 일환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과금을 절감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세이버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⁰⁶

당시 시장에는 이러한 노후 주택의 에너지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해당 건물들이 이미 다수의 저당권으로 얽혀 있다는 점과, 에너지 절감액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세이버스는 바로 이 금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촉매자본을 투입하며 시작된 프로젝트다.

에너지 세이버스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은 다양한 성격의 자본이 각자의 위험 수용 능력에 따라 설계된 금융 구조에 있다. 맥아더 재단은 초기 100만 달러의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 대출을 제공했으며, 이후 추가로 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자금은 민간 자본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850만 달러의 대출 자본을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카고

⁰⁵ URBAN INSTITUTE(2019), Innovative Financing Approaches for Affordable Rental Housing in the Chicago Region

⁰⁶ <https://www.cicchicago.com/programs/energy-savers/>

시와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계획청(CMAP)은 각각 175만 달러와 275만 달러를 출연하여 대출 손실 충당금을 형성함으로써, 민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표 2 에너지 세이버스 자본구조

자본 구조	참여 기관	역할
제1손실/총담금	시카고 시, CMAP	신용 보장 및 손실 흡수
촉매자본	맥아더 재단, 그랜드 빅토리아 재단	초기 위험 감수 및 트랙 레코드 구축
민간투자	뱅크오브아메리카 외 16개 금융기관	실제 대규모 대출 자금 공급

이러한 혼합 금융 구조를 통해 에너지 세이버스는 건물주에게 주택 가치의 최대 90%까지 연 3%, 7년 만기의 2순위 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델을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운영된 약 10년 동안의 에너지 세이버스 대출 연체율은 3.5%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예측된 에너지 절감이 실제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상환 재원이 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지역사회 투자 공사는 더 이상 외부의 촉매자본이나 특별한 손실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 개보수 용자를 자신의 주력 상품인 ‘다세대 주택 대출 프로그램’에 완전히 통합시켰다.

에너지 세이버스의 또 하나의 핵심은 금융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결합한 윈스톱 서비스 모델에 있다. 건물주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이 단순한 자금 부족만이 아니라 전문성 부재와 공사 관리 역량의 한계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트 에너지와 지역사회 투자 공사는 에너지 진단 → 금융 매칭 → 공사 감독 →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개선 후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혁신적인 방식은 시장에 존재하던 심리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에너지 세이버스 프로그램은 42,0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에너지 개보수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주택 소유주는 평균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25~30% 절감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노인, 특수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 흐름을 보장한다.⁰⁷

현재 지역사회 투자 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건물주의 60% 이상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진단을 받고 효율 개선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시카고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이는 촉매자본을 통해 상업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07 C3(2019), CATALYTIC CAPITAL AT WORK_case studies

02. 국내사례

1) 한국스마트협동조합-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프로그램⁰⁸

한국스마트협동조합⁰⁹의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은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 조성이 어떻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촉매자본 사례 중 하나이다.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 구조와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 특성으로 인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많은 예술인이 연 15~20%의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론에 의존하게 만들어 창작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들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ial Mutual ART(예술인 간의 상호부조)’라는 가치 아래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프로그램의 핵심은 조합이 조성한 ‘씨앗기금(Seed Fund)’이 촉매자본 역할을 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신협 등)의 자금을 예술인에게 끌어들이는 구조에 있다. 조합원들의 특별 조합비, 기부금,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 수익금을 통해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하였고, 이 기금은 손실을 먼저 감수하는 촉매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기금을 협력 금융기관(북서울신협, 태릉신협 등)에 예치하고, 만약 예술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씨앗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위험 분담 구조 덕분에 협력 금융기관은 예치된 기금의 약 6.7배에 달하는 대출 재원을 예술인에게 할당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상품 요약

상품	대출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상환방식	대출 기관	비고
긴급생활자금	조합원	최대 300만원 (초기 200만원)	5% 고정금리	2년 원리금 분할상환	북서울신협, 태릉신협	신용점수 무관
익일소액대출	조합비 3회차 이상 납 부자 또는 3개월 이상 가입 조합원 추천 필요	100만원		6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재)밴드	신속 대출, 소액 대출
프로젝트	조합원	500만원		6개월 만기일시상환	북서울신협	목적성 대출, 대출중단
특별대출	조합원	200만원		2년 원리금분할상환	(재)밴드	목적성 대출 1회성
자원연계대출	조합원	외부대출연계 알선	상품별 상이	상품별 상이	(재)밴드, 예술인복지재단 등	조합이 연계 및 알선

출처 : 한국스마트협동조합(2025), 202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보고서

촉매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25년 4월 말 기준, 총 305건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6억 9백만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으로 이어졌으며,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 5%의 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대비 약 1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위변제율은 금액 기준 5.1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위변제 발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위변제 된 금액 중 약 36.67%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저신용 예술인도 적

⁰⁸ 한국스마트협동조합(2025), 202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보고서

⁰⁹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다.

절한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성실한 금융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4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및 대위변제 내역

(단위:원)

지급 년도	총 대출 건수	총 대출액	대위변제 건수	대위변제 금액	금액기준 대위변제율	회수액	회수완료 건수	금액기준 회수율
2022	3	6,000,000	-	-	-	-	-	-
2023	84	185,000,000	9	12,648,891	6.84%	9,157,698	4	72.40%
2024	186	310,000,000	10	15,420,589	4.97%	2,238,607	1	14.52%
2025	32	108,000,000	1	3,011,506	2.79%	-	-	-
합계	305	609,000,000	20	31,080,986	5.1%	11,396,305	5	36.67%

출처 : 한국스마트협동조합(2025), 202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보고서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신용등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였으며, 대출 이용자가 납부하는 특별조합비가 다시 대출안 정기금으로 적립되어 다른 예술인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네트워크 기반의 ‘관계형 금융’이 공적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향후 기금 조성 방식의 다각화(정부-지자체 사업 연계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신진 예술가를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촉매자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아크 임팩트벤처투자 펀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임팩트 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9년 5월부터 한국성장금융과 공동펀드 상품 논의를 시작하여 '19년 12월 한국성장금융 소셜임팩트펀드 위탁운용사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성장사다리펀드(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관리)가 매칭하는 임팩트투자 펀드에 출자하였다.

이를 통해 조성된 아크 임팩트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은 United Nations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 SDGs)에서 정의한 사회·환경·보건·빈곤·기근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에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사회적·환경적 가치와 장기적으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 대상은 액셀러레이터 단계를 지나 비즈니스 확장 단계에 진입하는 소셜벤처 및 Series-B단계 이후 Pre-IPO단계의 벤처기업 중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동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포괄하며,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 기업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 전후로 핵심성과지표(KPI)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검토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촉매자본으로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핵심 역할은 펀드 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한 데 있다. KB금융그룹,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투자자들이 선순위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제2종 수익증권 매수를 통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민간자본이 안심하고 소셜임팩트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표 5 아크 임팩트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수익권 구분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가격	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제1종 수익증권	법 시행령 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서 선순위 배분을 원하는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제2종 수익증권	법 시행령 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서 제1종 수익증권 배분 후 후순위 배분을 원하는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제3종 수익증권	법 시행령 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을 원하는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25년 12월 기준, 펀드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계·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삶의 질 향상 등에 집중하는 소셜임팩트 창출기업 11개사(14건)에 투자하였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활용한 저개발국 백신보급, 농업과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농가의 평당 생산성 제고, 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례는 정책기관인 한국성장금융과의 공동심사 체계 구축을 통해 임팩트 투자 육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후순위 출자라는 촉매자본 구조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사회적 금융 시장 진입을 이끈 사례이다.

IV. 국내 촉매자본의 활성화 방안

01. 공익법인 사회투자제도¹⁰

공익법인은 재무적 수익 극대화라는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투자 생태계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특히 이들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꺼리는 초기 단계의 사회적 기업이나 고위험 프로젝트에 촉매자본 혹은 인내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다. 국내 촉매자본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사회투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현재 국내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사회투자가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주관청의 재량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익법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2) 전문 자문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사회투자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전문 중개 및 자문기관의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3) 공익법인의 지분투자 제한 완화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또는 10% 이상 보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나, 자본 규모가 작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은 기업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본규모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촉매자본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¹⁰ 김효선(2025),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SVS인사이트09,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02. 지역기금과 중개기관 기반의 도매-소매 구조 구축

촉매자본이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전달 체계의 설계가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기금과 전문 중개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는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필수 조건이다.

(1) 지역 밀착형 공급망 구축

중앙 집중식 자본 공급 방식은 지역 현장의 세밀한 수요를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금융 구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지역 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순환형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문제에 특화된 촉매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지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갖춘 지역 기반 중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에게 초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촉매자본을 우선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중개기관의 리스크 완화 역할 강화

촉매자본은 본래 고위험을 감수하지만, 이를 관리할 중개기관이 없다면 자본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개기관은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임팩트 성과를 측정하는 등 액셀러레이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촉매자본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 자본이나 공공 자산이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손실 우선 충당 등의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도매-소매 연계 모델 도입

중앙 단위의 촉매자본 공급처인 도매기금은 직접 투자가 아닌, 지역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금 매칭, 중개기관 발굴·육성, 맞춤형 상품 개발, 사회성과 관리체계 도입 등의 도매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현장의 전문기관은 공급받은 자본을 지역의 실패할 같은 프로젝트에 직접 배분하며, 지역 거버넌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본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03. 임팩트 성과 기반 사회투자 시장 구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집계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성과 기반 시장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1) 임팩트 측정 및 평가 체계의 표준화(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IMM)

사회적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 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 된 임팩트 측정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탄소 배출 감소량, 고용 취약계층 비중 등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변화를 아우르는 산업별 표준 지표를 마련하여 투자자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성과를 검증·인증하는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별 조직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성과 연동형 금융 상품의 확산

실제 창출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나 상환 조건이 달라지는 금융 구조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부가 성과 보상금을 지급 등 금융구조를 다양화하여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설정한 사회적 목표(KPI)를 달성할 경우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하는 유인책 설계,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공공조달 가점, 세제 혜택 등 비금융적 보상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3) 임팩트 데이터 플랫폼 및 공시 제도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임팩트 기업들의 재무 및 사회적 성과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이나 펀드가 사회적 영향력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결정 시 '사회적 성과'를 핵심 지표로 다루는 문화를 정착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성 완화는 사회투자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V. 결론

촉매자본은 ‘위험의 재분배’를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 수용할 수 없는 초기 위험과 양보적 수익률을 촉매자본이 인수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단순한 기부보다 훨씬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낳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 자본이 유입되지 못하는 영역의 자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촉매자본은 적절한 금융 구조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GHIF)는 부분 손실 보증 구조를 통해 소외 질병 치료제 개발이라는 고위험 영역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에너지 세이버스는 재단의 선도적 투자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결국 정규 금융 상품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한국스마트협동조합-예술인 상호부조 대출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아크 임팩트벤처투자 펀드 사례도 촉매자본이 한국의 사회적 금융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씨앗기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구조, 후순위 투자를 통한 민간자본 참여 유도 등은 촉매자본의 핵심 원리가 국내 현장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생태계 전반의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지역기금과 중개기관을 연계한 자본 전달 체계 구축, 그리고 임팩트 성과 측정과 보상이 내재화된 시장 구조의 형성은 국내 촉매자본 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다.

촉매자본의 세 가지 역할인 싹틔우기(Seeding), 규모화(Scaling), 지속하기(Sustaining)는 서로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경로다. 싹틔우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규모화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며, 구조적으로 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지속하기를 통해 공익적 자본의 지속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 경로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사회적 금융 생태계는 자생적 구조로 성숙할 수 있다.

촉매자본은 금융의 언어로 사회적 선의를 실현하는 도구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촉매자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금융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참고문헌]

- 김효선(2025),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SVS인사이트09,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2025). 『2024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보고서』.
- C3. (2019). Catalytic Capital at Work: Case Studies.
- C3. (2022). Advancing Practice in Catalytic Capital Guidance Note Series.
-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2013). Catalytic First-Loss Capital.
- IFC. (2017). Saving the Lives of the Most Vulnerable with Financial Returns: GHIF – An Innovative Funding Structure Tackles Neglected Diseases Around the World.
- Impact Europe. (2024). Catalytic Capital 101. Retrieved from <https://www.impacteurope.net/insights/catalytic-capital-101>
- Pedersen, L. C. (2025). Impact investing needs to rediscover its catalytic edge. ImpactAlpha. Retrieved from <https://impactalpha.com/impact-investing-needs-to-rediscover-its-catalytic-edge/>
- Tideline. (2019). Catalytic Capital: Unlocking More Investment and Impact.
- Urban Institute. (2019). Innovative Financing Approaches for Affordable Rental Housing in the Chicago Region.
- Community Investment Corporation (CIC). (n.d.). Energy Saver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cicchicago.com/programs/energy-savers/>
- MacArthur Foundation. (n.d.). Catalytic Capital Consortium. Retrieved from <https://www.macfound.org/programs/field-support/impact-investments/catalytic-capital-consortium/>

SVS 인사이트 11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마중물,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연구자 변시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획조사팀장

발행일 2026년 5월 14일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14-10, 2층(서교동, 강화빌딩)

전화 02-2088-3288

메일 info@svsfund.org

홈페이지 www.svsfund.org



